신비한 합일
제 2권 7장

신비한 합일
제 2권 7장

사랑을 정복한 자는 사랑에 정복당한 자이다.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탐구에 매진하라. 그러나 바다에 다다랐을 때는, 시냇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분이 그대를 그의 현존에 들일 때,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구하지 마라.

그가 그대를 벗으로 선택했을 때, 그대는 봐야 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사랑의 세계에는 이원성이 없다. 이 '너'와 '나'라는 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가득 찬 잔을 어떻게 채우겠는가? 그의 문 앞에 그대 자신 전부를 가져오라. 일부분만 가져온다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그대 자신의 신앙과 불신이 그대 자신을 규정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이 그대의 지각을 물들인다. 영원은 믿음도 불신도 알지 못한다. 순수한 자연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벗이여, 그대가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삶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지위와 명성에 등을 돌리는 것. 외적인 번영을 경멸하고, 그분에게 봉사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헌신하는 것. 말로 장사하는 자들과 결별하고, 말이 없는 현존 앞에 자리를 잡는 것."

그 벗에게 가는 길은 그대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대 자신이 그 길이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나서라.

포도의 즙에서 나오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대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는 포도의 외형에 취해 있을 것인가? 왜 그대는 자신이 취했다고 거짓말하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갈 곳이 없다.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그대는 발이 없다.

하킴 산아기가 말한다.
『사랑을 정복한 자는 사랑에 정복당한 자이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깊이 명상해 보라. 신을 찾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신이 언제나 먼저 그 탐색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가 신을 선택하는 것은, 신이 이미 그대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의 시작은 오직 그의 은혜 덕분이다.

혹 그대가 에고의 마음으로 "내가 신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신이 먼저 그대를 찾지 않으시면, 그대는 신을 선택할 수 없다. 그대는 언제나 신에 의해 선택받는다.

하지만 그 현상은 그대의 존재성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에, 그대가 그곳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고 보니,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신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사랑이 먼저 내 가슴을 두드렸기에, 비로소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

이 경전은 수피즘, 즉 사랑의 길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사랑은 결코 정복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정복하고, 미움은 언제나 정복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 미움은 무력하다.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 미움은 열망으로 가득하고, 야심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정복하려는 생각도, 지배하려는 생각도,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최고의 정복자가 된다.

예수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끝에 선 자가 내 하느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노자는 물의 길,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이야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바위는 단단하고, 모든 힘을 다해 이기려 들며, 거칠고 완강하지만, 결국에는 부서지고 허물어져 모래가 되어 바다로 돌아간다.

물은 아주 겸손하고 꾸밈이 없으며,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 누구를 이기거나 해치려는 마음도 없이, 언제나 몸을 낮추고 흐름에 맡길 뿐이다. 하지만 물과 바위가 만나 부딪힐 때, 결국에는 바위가 닳아 없어지고 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산아이는 말한다. 『사랑을 정복한 자는 사랑에 정복당한 자이다.』
사랑의 세계, 즉 신의 세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내맡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사랑에 정복당해야 한다. 사랑이 그대를 정복할 때, 왕위에 오르고, 왕관을 쓰고, 승리자가 된다. 오직 사랑이 그대를 정복할 때만 그렇다.

결코 저항하지 마라. 저항은 실패할 운명이다. 저항이 그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한다. 크고 강한 나무처럼 되지 마라. 폭풍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저항하지만, 그 저항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잘못은 강한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의 에고적 저항에 있다. 구부러지려 하지 않기에 죽는다.

풀잎을 보라. 바람이 불면 풀잎은 단순히 바람과 함께 움직인다. 바람을 따라가며 구부러진다.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면 풀은 남쪽으로 구부러진다. 전혀 저항 없이, 엄청난 내맡김과 신뢰 속에서 같이 흔들린다.

바람이 잔잔해지면 풀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바람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풀잎은 겸손하고, 약하고, 여성적이고, 부드럽다. 큰 나무는 단단하고, 남성적이고, 오만하다. 풀잎에서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

예수는 말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
이는 예수의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기억하라. 예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다. 예수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에 무엇인가를 얻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온유함 안에서, 그들의 겸손함 안에서, 그들은 이미 도달했고, 이미 성취했다.

이것이 내맡김의 의미이다. 신은 정복될 수 없다. 그대는 오직 신에게 정복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뿐이다.

진리를 공격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것이 진리를 놓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기에 과학은 계속해서 신을 놓치고 있다. 도(道)를 그 근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속 놓칠 것이다. 계속 놓칠 것이다.

과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신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섬광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과학의 남성적인 방법론에 있다. 과학은 공격적이다. 과학의 모든 노력은 자연을 정복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바로 그 정복이라는 생각, 정복이라는 목표 자체가
신이 과학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 과학의 바로 그 방법론이 신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막아 왔다.

종교가 신에 대해 알게 해준다. 그 종교의 방식은 과학의 방식과 정반대이다. 과학은 공격적이고 남성적이며, 미묘하게는 강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과학은 자연을 강간하고, 종교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기억하라. 외부에서 보면, 강간과 사랑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행위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같지 않다. 완전히 반대이고, 정반대이다. 강간 행위에는 사랑이 전혀 없고, 사랑 행위에는 강간이 전혀 없다. 그러니 겉모습에 속지 마라.

우리는 모두 과학적 방식으로 훈련받아 왔다. 그것이 우리의 조건반사가 되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종교적 접근 방식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과학적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종교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과학적 적용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부적절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에 매달린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방법에 매달리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다. 방법 자

체가 목표가 아니다. 방법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그냥 버려라!

과학이 그대에게 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과학적 방법이 종교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딘가에는 칼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어딘가에서는 바늘 하나면 충분하다. 바늘이 필요한 곳에서는 제발 칼을 사용하지 마라.

위대한 수피 신비주의자 파리드의 생애에서, 한 왕이 그를 보러 왔다고 전해진다. 왕은 그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다. 금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가위 한 쌍을 가져왔다. 매우 귀하고, 매우 희귀하고,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왕은 그 가위를 파리드에게 주려고 가져왔다.

왕은 파리드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위를 주었다. 파리드는 그것을 받아 들고 보고는, 다시 왕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폐하, 가져오신 선물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물건이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바늘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는 필요 없습니다. 바늘이면 충분합니다.”

왕이 말했다. “이해하지 못하겠소. 바늘이 필요하다면, 가위도 필요할 텐데.”
파리드가 말했다. ”저는 비유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위는 사물을 분리하는 용도이기에 필요 없고, 바늘은 사물을 함께 묶는 용도이기에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제 모든 가르침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물을 함께 묶고, 사람들에게 교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바늘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함께 묶기 위해서입니다. 자르고 단절시키는 가위는 쓸모없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평범한 바늘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바늘이 필요한 곳에 칼을 사용하면 위험하다. 사람은 방법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방법에 집착한 나머지, 방법을 바꾸기보다는 신을 버리려고 한다. 우리의 방법이 신을 드러낼 수 없기에,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눈으로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음악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귀로는 색깔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귀가 색깔을 알 수 없고, 눈은 음악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에는 귀가 필요하고, 색과 꽃 그리고 무지개에는 눈이 필요하다.

종교는 정복의 길이 아닌 내맡김의 길이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다. 『사랑을

정복한 자는 사랑에 정복당한 자이다.』
역설은 사랑에 내맡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 승리자가 그대의 무의식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놓칠 것이다.

정복하고 싶다면, 먼저 정복당해야 한다. 그대는 정복하고 싶어 한다. 깊은 내면에는 항상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아. 정복하는 길이 정복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정복당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정복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대는 놓칠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동기가 모든 아름다움, 모든 접근 방식을 파괴할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기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승리는 결과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가 아니라 결과이다. 정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을 때 승리가 찾아온다. 정복자의 여행을 떠나지 않고, 에고의 여행을 떠나지 않을 때 승리는 찾아온다. 그 승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항복한 가슴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맡김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체와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슬프다면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슬퍼하라. 그대의 슬픔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 특정한 시간에 그대에게 필요한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필요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순간 그러한 분위기가 그대에게 필요했다.

그러므로 슬프다면 완전히 슬퍼하라. 그것은 신이 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과 싸우려는, 그것을 버리려는, 그것을 넘어서려는, 슬프지 않으려는 아주 미세한 잠재적인 동기조차 없이 완전히 슬픔이 되어라. 아니다, 그러지 말라! 그냥 그것과 함께 편안히 있으면, 그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슬픔과 함께 편안히 있을 때 슬픔은 빛나게 된다. 그렇다. 슬픔조차도 빛나게 된다. 왜냐하면 수용은 그토록 마법 같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험해 보고, 그것의 일어남을 보라.

부처는 말했다. 『이히 파시코』 와서 보고, 실험해 보고 그것을 보라.

무엇을 느끼든지 그것과 함께 있으라. 완전히 그것과 함께 있으라. 선과 악에 관한 판단 없이 그냥 함께하라. 그러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것과 함게 하라. 부처는 그것을 "타타타", 즉 "있는 그대로"라고 부른다. 이 순간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신이 그대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대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은 그대의 필요일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이해가 문제가 아니며, 그대의 수용이 문제이다. 완전히 편안한 수용 안에 있으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가진 것이다.

신뢰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이 신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이 전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것을 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누가 그대가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떤 외부의 힘도 그대가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승리는 그대의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탐구에 매진하라. 그러나 바다에 다다랐을 때는, 시냇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어라.』

신은 그대의 전적인 관여를 원한다. 부분적인 관여는 효과가 전혀 없다. 부분적인 관여는 진정한 관여가 아니다. 진정한 관여는 항상 전체적인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탐구에 매진하라.』
탐구는 열정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대가 찾아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그대는 돈과 권력과 명성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찾아왔다. 신은 그대의 긴 욕망 목록 중 단지 하나의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를 목록의 첫 번째에 놓는다 해도, 그대는 계속해서 신을 놓칠 것이다. 신이 그대의 유일한 탐구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모든 욕망이 하나의 욕망으로 점철되어야 한다. 그대의 모든 욕망은 마치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하나로 흘러들어야 한다. 신이 그대의 유일한 탐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계시가 찾아온다.

수많은 사람이 신을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신비에 다다르지 못하고, 신의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신은 그들의 쇼핑 목록에서 단지 하나의 항목, 그저 하나의 항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완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전체적인 헌신만이 성공한다.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시인을 볼 때도, 그 시인의 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헌신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위대한 것이다. 전체성이 위대함을 가져온다. 예술가의 모든 삶은 단 하나의 의미, 하나의 중심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예술이라는 그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반 고흐나 피카소를 보면, 그의 모든 삶은 오직 그림 그리는 것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 명상하고, 그것에 대한 꿈을 꾸며, 끊임없이 그것에 매료된다. 단 한 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

화가가 거리를 걸을 때,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단순히 얼굴로 보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생각한다. 꽃을 볼 때도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그것들을 그려야 할지에 있다.

심지어 꿈속에서 다채로운 꿈을 꾸는 중에도, 위대한 화가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흐른다. 그것이 그의 숨결이자 심장 박동이다. 바로 그것

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그대의 헌신이 전체적일 때, 위대한 재능을 얻게 된다. 그러니 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신은 바로 존재의 중심이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만
그 중심에 도달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도박이지 사업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든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신과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한다. 차가운 철학적 사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차가운 방식으로 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신은 모든 삶의 생명이며,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뜨거운 것이다. 그대가 그렇게 차갑다면, 철학적으로 차갑다면,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 과학자는 매우 차갑다. 그의 일은 냉정한 노력이다. 그는 초연해야 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헌신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항상 관찰자, 외부인, 매우 차갑고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의 기본 바탕이다.

시인은 그렇게 차가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시는 차가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시에는 숨결이 없을 것이다. 차가우면 삶으로 맥동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관여해야 한다. 그리고 신비가는 전체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시인은 가끔 관여한다. 가끔 관여하기에, 오직 가끔 시인일 뿐이다. 어떤 시인도 24시간 내내 시인은 아니다. 만약 그가 24시간 내내 시인이라면, 그는 신비가 이다. 그러면 시는 그의 기도가 된다. 화가가 24시간 내내 화가라면, 그는 다른 명상이 필요 없고, 다른 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그는 베다와 성경과 코란을 모두 잊어 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베다, 자신의 성경, 자신의 코란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는 것이 전부이다.

만약 그가 24시간 내내 그것에 대해 뜨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마치 혈액이 몸속에서 순환하는 것처럼
그의 존재 안에서 끊임없는 순환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신비가 이다.

시인은 오직 가끔 열정적으로 된다. 그가 차가운 숫자, 계산, 산술의 평범한 세속의 세계로 되돌아가면, 시의 흐름을 잃는다. 가끔 창문이 열리고 그가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지만, 오직 가끔일 뿐이다.

신비가는 24시간 내내 시인이다. 기억하라! 진정으로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대는 완전히 열정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과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단지 의문이 아니라 헌신적 탐구이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인 탐구가 아니며, 존재적인 목마름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목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물의 성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그에게 물의 원소, 화학적 성질, 구성 방식에 관한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H2O라는 공식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는 그대에게 달려들어 죽이려 할 것이다. 목마른 그는 물에 관한 철학적, 과학적

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는 물을 원한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대는 물의 구성성분 H_2O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그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탐색이 열정적일 때, 어떤 경전도 그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경전에 만족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색이 진실하지 않고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의 기타를 읽고, 코란을 암송한다. 그들의 탐색은 가짜이다. 만약 그들의 탐색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말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순례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보안성, 안정성, 편안함, 안락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신이 그들의 유일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탐구에 매진하라. 그러나 바다에 다다랐을 때는, 시냇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어라.』

강이 바다에 다다르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는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바다에 용해된다. "나는 갠지스강이다.", "나는 아마존강이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보라.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는다. 바람과 하늘에 선언하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소란도 없이 그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완전한 열정으로 신을 탐색하라. 그러나 그대가 도착했을 때는, 천천히 그의 존재 속으로 녹아들어라.

그러고 나서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에고의 마지막 전략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착했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나는 싯다가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에고의 마지막 요새이다. 그것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 요새가 마지막 걸림돌이기에, 가장 미묘하다.

그대의 에고는 위대한 성자가 된 척할 것이고, 궁극의 진리에 도달했다고 가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강물이 바다에 녹아들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우파니샤드는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금 더 성숙해지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은,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라고 선언한 날,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델포이 신탁은 '소크라테스는 지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같은 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다시 신탁에 가서 물어보시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 압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신탁에 물었다.

그러자 신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이유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선언한 것이다. 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궁극의 깨달음이다. 강물이 바다에 녹아 사라졌다. 이제 아는 자가 없으니, 누가 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기에,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는 지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에고는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그대와 함께하며, 그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 세상 어디를 가도, 그것이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사원에 가도, 그것은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종교적으로 되어도, 그것은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것은 너무나 영리해서 어떤 옷이든 필요하면 걸친다. 그대가 종교적이라면 그대의 에고는 종교적으로 되고, 그대가 금욕주의자라면 그대의 에고는 금욕주의자가 된다. 그것은 그대의 그림자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대를 따라다니고, 그대를 모방한다. 그것은 거울 속 그대의 모습이다.

기억하라. 거울 속 그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는 신과 마주하지 못한 것이다. 신은 거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물에게 신은 바다와 같다. 사람은 그저 그 안으로 녹아들 뿐이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신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신을 ‘당신’이라고 부를 ‘나’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는 종교를 끊임없는 대화로 여겼다. 그의 유명한 책 《나와 너》에서, 그는 기도를 ‘나’와 궁극적인 ‘너’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로 대화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상태에서는 두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기에 전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지, 전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침묵이다.

구하는 자와 구하는 대상은 한 몸이 되어, 단 1인치의 구별이나 차이도 없다. 누가 ‘나’라고 말하고 누가 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겠는가?

마틴 부버의 기도는 시작에 관한 한 옳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는 기도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것 같다. 좋은 사람, 보기 드문 사람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주변부에서 길을 잃고 주변부에 매우 집착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유대교적인 마음의 조건화 때문이었다. 그가 이 나라에 있었다면 《나와 너》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침묵이 지배하는 궁극적인 합일을 선언하는 또 다른 책을 썼을 것이다.

기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소멸, 사라짐이

다. 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져서 돌아올 수 없다. 그대는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다.

에고를 경계해야 한다.

코끼리들과 쥐들이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살고 있었다.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쥐 한 마리를 밟아 땅에 쓰러뜨린다. 잠시 후 쥐가 깨어나자, 코끼리가 깊은 슬픔에 잠겨 말한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쥐가 매우 친절하게 대답했다. "아, 괜찮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똑같은 에고가 계속된다. 쥐에서 사람까지, 똑같은 에고가 계속되고, 세속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까지, 똑같은 에고가 지속된다.

참으로 신성한 폭발은 모든 에고의 흔적이 사라졌을 때만 일어나며, 그래야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분이 그대를 그의 현존에 들일 때,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구하지 마라. 그분이 그대를 벗으로 선택했을 때, 그대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본 것이다. 사랑의 세계에는 이원성이 없다. 이 모든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란 다 무엇인가? 이미 가득 찬 잔을 어떻게 더 채울 수 있는가?』

신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신은 현존이다. 이 세 단계를 생각해 보라. 씨앗, 꽃, 그리고 향기. 씨앗은 매우 둔탁하고 단단하며 거의 조약돌처럼 생겼다.

씨앗은 못생겼다.
씨앗 자체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해부해도
그 안에서 어떤 꽃도, 심지어 아주 작은 꽃도 찾을 수 없으며, 물론 어떤 향기도 찾을 수 없다.

씨앗은 가장 거친 상태이다. 거기서 꽃이 온다. 씨앗이 죽고 사라졌을 때, 그때 꽃이 나온다. 꽃은 더 미묘하고, 더 섬세하고, 더 여성적이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다. 꽃은 하늘의 무언가를 땅으로 가져온다.

꽃은 땅과 하늘 사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 중간 지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더 높은 단계가 있다. 바로 향기의 단계이다. 꽃은 아름답지만, 여전히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물질적이다.

씨앗보다 더 미묘한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물리적 세계의 일부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의 경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향기는 순수한 비가시성이다.

꽃이 진다면,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땅의 일부이다. 높이 올라가, 큰 아름다움을 이루었고, 별과 달과 해와 속삭여 왔다. 하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중력이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것이고, 땅이 그것을 끌어당겨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단 하루만 공중과 하늘로 솟아오를 수도 있다. 그 솟아오름은 순간적이다. 저녁이 되면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밤에는 시들어 버렸을지도 모르며, 아침에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향기는 땅을 떠났다. 땅은 그 향기를 다시 가져올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져서 중력을 초월한다. 향기는 위로 올라가고, 하늘이 그것을 차지한다. 향기와 씨앗 사이에 꽃이 있다.

씨앗과 꽃 그리고 향기는 인간 의식의 세 단계이기도 하다. 사람 대부분은 씨앗의 형태로 살아간다. 그들은 결코 꽃이 되지 못한다. 극히 적은 사람들, 백만 명 중 한 명만이 꽃이 된다. 꽃이 되는 것조차 세상에서는 기적이다. 하지만 수천 송이의 꽃 중에서 단 하나만이 향기가 된다.

부처, 산아이, 소산, 조로아스터 –
수백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향기, 순수한 향기, 그저 순수, 순수한 은총이 된다. 그 은총은 단지 현존이다.

부처가 죽었을 때, 여러 해 동안 그의 제자들은 그의 존재를 느꼈다. 부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사실 그의 존재는 아직도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에 열릴 수 있는 제자가 더 이상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과 접촉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

어떤 사람이 신성에 도달했을 때, 그는 존재가 된다. 그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그 존재는 그의 육신을 둘러싼다. 화가들은 그 존재를, 깨달은 사람을 둘러싼 아우라로 묘사해 왔다. 그것은 단지 존재성을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질 수 없는 것을 그리는 방식일 뿐이다. 존재가 그를 둘러싼다. 그리고 그 존재는 육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육신이 사라져도 그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존재성은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 스승에게 깊이 헌신하며,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 스승은 절대 죽지 않으며, 그들에게 스승은 항상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 있다. 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존재이다. 부처란 단지 때때로 출현하는 영원한 존재를 나타낼 뿐이다. 때때로,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어 있는 사람에게, 그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비로워서 영원한 것이 그를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때때로, 피리처럼 너무나 헌신하고, 피리처럼 너무나 비어 있는 사람에게
신이 그를 통해 노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신은 항상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수많은 라디오 파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들을 수 없다. 라디오를 가져와 특정 방송국에 맞추면, 들리지 않던 것이 즉시 들리게 된다. 신은 항상 존재하는 라디오 파와 같다.

때때로, 부처, 예수, 크리슈나, 무함마드가 라디오처럼 지구에 존재한다. 신에게 맞춰지고, 연결되고, 연결된 라디오처럼 된다. 그러면 그 존재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신은 존재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옳다. 유대인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옳다. 이유는, 어떻게 존재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사람은 표현될 수 있다. 사람의 사진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존재인 것의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 꽃의 사진은 가질 수 있지만, 향기의 사진은 가질 수 없다.

『그분이 그대를 그의 현존에 들일 때,』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손님이 되는 큰 선물을 허락받을 때…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구하지 마라.』
만약 다른 것을 구한다면,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것이다.

위대한 수피 신비주의자 바야지드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밤,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돕는 위대한 천사 키드르가
바야지드에게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바야지드가 명상하고 있던 어두운 방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가 눈을 떴다.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눈을 뜨자 키드르가 있었다. 키드르가 말했다:
“신께서 그대를 매우 기뻐하신다.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바야지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늦게 왔소. 내 모든 욕망은 사라졌고, 이제 나는 아무런 욕망도 없소.”

그러나 키드르도 고집했다. 그가 말했다. “이는 신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오. 그대는 무언가를 그에게 구해야 하오! 무엇이든 요구할 수만 있소, 그러니 구해야 하오. 신께서 베푸실 때, 무엇이든 요구해야 하오! 거절은 신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오.”

바야지드도 대단히 고집을 부렸다. 바야지드는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어떤 욕망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소. 그의 연민은 너무나 커서 내가 욕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충족되어 있고, 내가 머릿속으로 욕망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충족되어 있소. 그것이 나에게 닿기도 전에 그에게 닿으니,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소?”

하지만 키드르도 고집하며 말했다. “이것은 모욕적인 일이며, 신께서 매우 화내실 것이오.”

그래서 바야지드는 말했다. “좋소, 당신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나의 욕구 없음이 ‘아다브’(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나는 오직 그만을 원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시오.”
이에 키드르가 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이야, 이제 너는 놓쳤어!”

“나는 신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구하는 것이다. 신을 바라는 것조차 욕망이다. 산아이는 먼저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대가 그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구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그대를 까무러치게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대가 오직 신만을 구하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궁극적인 진리가 스승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그조차 구하지 마라. 모든 구함은 여전히 에고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아무 욕망 없이 그의 존재 안에 머무르라. 욕망이 없을 때, 그대와 그 사이에 연기가 없다. 욕망이 연기를 만들고, 연기는 만리장성으로 변할 수 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그가 그대를 그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했다는 것에 전율하고, 황홀경 속에서 춤추라.

하지만 그대가 아직 그만큼의 무욕에 이를 수 없다면, 차선책은 –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차선책임을 기억하라 – 그를 구하는 것이다.

『그가 그대를 벗으로 선택했을 때, 그대는 봐야 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그가 그대를 벗으로 선택했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얻겠는가? 그는 이미 그대를 벗으로 선택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대를 창조함으로써 이미 그대를 선택한 것이다. 그 웅장함을 보라, 그 영광을 보라. 그대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보라.

『그대는 봐야 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사랑의 세계에는 이원성이 없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이 ‘너’와 ‘나’라는 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산아이는 그대가 신을 구하는 것조차 이원성을 만드는 행위임을, 즉 ‘나’와 ‘너’를 만드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는 지점으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 ‘나’와 ‘너’로서 누가 존재하겠는가?
『이미 가득 찬 잔을 어떻게 채우겠는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그는 이미 그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대의 잔은 가득 차 있다! 그대 안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잔은 가득 차 있으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신이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것을 보라! 그대 안에는 빠진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신비가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 즉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완전함으로부터 완전함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신이 완전하다면 그대가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불완전하다면 신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누구도 불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대의 사제들은 계속해서 그대가 불완전하고, 죄인이며, 가치 없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허튼소리, 그저 헛소리일 뿐이다. 지옥은 없다. 모든 것은 낙원이며, 죄인과 성인 모두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일단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의 삶은 새로운 색깔, 새로운 춤을 추게 되고, 노래가 되고, 축제가 된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미 가득 찬 잔을 어떻게 채우겠는가? 그의 문 앞에 그대 자신 전부를 가져오라. 일부분만 가져온다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인간은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인간을 해부할 수 없다. 해부하면 죽이는 것이다.

장미꽃을 해부하여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한다면, 꽃만을 파괴하고 절대 그 아름다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해부로는 찾을 수 없고, 꽃과 함께 참여하는 것만이 그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인을 해부하거나 외과의사에게 데려가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존재에 참여하고, 그녀의 에너지를 마시고, 그녀가 그대의 에너지를 마시도록 허락할 때만
여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의 존재를 마실 때,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깊은 친밀함과 참여 속에서 아름다움은 알려진다.

아름다움은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그대의 의식 또한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어떤 것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가 무언가를 버린다면, 그대는 반쪽이 될 것이고, 그 반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민담, 즉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아프간인들은 온전한 채로 죽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수술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의사가 "콩팥을 제거하시오"라고 말하면 아프간인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신에게 가야 합니다. 신께서 '네 콩팥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페샤와르에서 영국 통치 시대에 한 아프간인이 입원했다. 그의 손 중 하나를 잘라내야 했다. 만약 손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는 죽을 것이었다.

아프간인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의사가 이렇게 설득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을 온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화학 약품에 보존해 두었다가 당신이 죽으면 당신과 함께 넣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면 신

께 손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인들은 순박한 사람들, 매우 순박한 사람들이다.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사는 약속했다. 물론 그는 그것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지 않았지만, 약속했다. 그 아프간인의 순수한 기쁨을 보고 그는 그것을 보존하기로 했다. 큰 병에 손은 화학 약품에 보존되었다. 하지만 2년 후 병원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불에 탔고 손도 함께 소실되었다. 아프간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의사는 은퇴하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놀랐다. 그는 눈을 떴고, 기억해 냈다. 그는 바로 그 아프간인이었고,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아프간인은 매우 화를 내며 그를 격렬하게 흔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손은 어디 있소? 나는 죽었소! 그런데 지금 신께서 '네 손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소!"

잠시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곧이어 그가 말했다. "기다리시오. 내일 밤에 오시오. 나는 수많은 수집품을 가지고 있소. 아마 당신의 손도 거기에 있지만, 찾아봐야 하오. 그러니 내일 찾아놓을 테니 내일 밤에 오시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런던의 모든 병원을 뒤져 손을 하나 찾았다. 그는 손 하나를 찾았고,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밤 그는 유령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아프간인이 왔고, 그는 손을 되찾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다. 의사는 그를 손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아프간인은 그 손을 보고, 항아리를 열어 손을 꺼내 보더니 바닥에 던졌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그에게는 오른손이 없었는데, 이것은 왼손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핵심은 어떤 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의 사제들은 그대에게 버리라고 말해 왔다. 성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라고 말해 왔다. 사제들은 그대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버리라고 말해 왔다. 만약 그대가 사제들의 말을 듣는다면, 거의 텅 빈 채로 신에게 가게 될 것이다. 신은 물을 것이다. "그대의 손은 어디 있는가?"

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주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 에너지들은 변형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것이었다."

성은 독신이 되어야 하고, 분노는 그대의 연민이 되어야 한다.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대는 그것을 매우 능숙하게 지능적으로 살아야 한다. 분노를 버린다면 그대는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분으로는 전체에 도달할 수 없다. 전체에 이르려면, 그대는 전체로서 가야 한다.

이 말은 아름답다. 『그의 문 앞에 그대 자신 전부를 가져오라. 일부분만 가져온다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나의 노력은 그대가 온전한 상태로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이 준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성은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 그대의 분노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창조적일 수도 있다.

분노는 중립적이다. 그것은 그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대에게 "분노를 버리라"라고 말해 왔다. 그렇기에 모든 종교인은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매우 창의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무능의 긴 이야기일 뿐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단지 지구의 짐일 뿐이다. 그대의 성인들, 소위 현자들은 단지 짐일 뿐이다.

그들은 존재성에 아무것도 이바지하지 않았고, 존재성을 조금도 더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았으며, 삶에 단 하나의 노래도 더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생충처럼 이곳에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그들은 창의성으로 변형될 수 있었던 에너지를 버렸기 때문이다. 분노를 버리는 사람은 반항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분노는 위대한 반항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반항, 모든 썩은 것에 대한 반항, 과거에 대한 반항, 미래를 위한 반항,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기 위한 반항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성은 창의성이다.

아이들만 성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도 성 에너지의 부산물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매우 성적인 사람들이다. 시인, 화가, 가수, 무용가, 모두 성적인 사람들이다.

가장 위대한 신비가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성 에너지는 더 이상 씨앗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꽃을 피우고, 꽃이 되었으며, 단지 꽃일 뿐만 아니라 향기가 되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축복을 세상에 가져온다. 그 에너지는 축복이다.

신에게 갈 때는 유기적인 통일체로, 전체로서 가라. 부분적인 모습으로는 매우 추해 보일 것이다. 부분적인 모습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 자신의 신앙과 불신이 그대 자신을 규정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이 그대의 지각을 물들인다. 영원은 믿음이나 불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순수한 본성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믿음, 그대의 불신, 그대의 유신론, 그대의 무신론, 그대의 이념들은 모두 에고의 산물이다. 실체에는 믿음도 불신도 없다. 실체에는 오직 순수함만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종교의 사람은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믿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는 어떠한 이념도 갖지 않는다. 이념은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을 지탱하고, 마음에 영양을 공급한다.

가슴은 이념을 알지 못한다. 가슴은 오직 사랑만을 안다. 그리고 사랑은 신성으로 가는 문이다.

『그대 자신의 신앙과 불신이 그대 자신을 규정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이 그대의 지각을 물들인다.』

그대는 힌두교도이고,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가톨릭 신자이고, 공산주의자라고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그대의 꿈이다. 현실은 힌두교, 기독교, 불교, 자이나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실은 단지 실재할 뿐이다.

꽃은 그저 꽃이다. 꽃에게 “너는 무슬림이니?”라고 물어보면 꽃은 웃을 것이다. 사자에게 “너는 힌두교도니?”라고 물어보면 사자도 웃을 것이다.

존재를 바라보라.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신경증적인 것 같지 않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한 젊은 여인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잘생긴 남자 천사가 그녀의 침실로 날아와 그녀를 팔에 안았다. 그들은 함께 창문 밖으로 날아올라 한동안 하늘을 날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의 성에 도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들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호화로운 침대 위에 놓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말했다.“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이것은 내 꿈이 아니야.”

그대의 모든 이념들은 그저 그대의 꿈일 뿐이다. 꿈꾸는 것을 멈추고, 감각으로 돌아오라. 머리에서 벗어나 감각으로 돌아오라. 감각은 순수하다. 존재에 더욱 민감해져라. 그 아름다움, 그 기쁨에 더욱 민감해져라.

『영원은 믿음도 불신도 알지 못한다. 순수한 자연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벗이여, 그대가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의 깊게 들어보라! 『“삶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지위와 명성에 등을 돌리는 것. 외적인 번영을 경멸하고, 그분에게 봉사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헌신하는 것. 말로 장사하는 자들과 결별하고, 말이 없는 현존 앞에 자리를 잡는 것.”』

산아이의 첫 번째 말은 이렇다.
『그리고 벗이여, 그대가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삶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이다. 삶을 긍정하라. 『삶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나무와 새와 동물과 별과 강과 바다와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그대의 사제들은 정반대의 말을 해왔다. 그들은 "삶을 등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삶을 부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삶을 버려라."라고 말한다.

사나이는 말한다. "삶을 기뻐하라."
세상의 사제들은 그저 독살자들이다. 인류가 알아 온 가장 큰 적은 인류의 사제들이다. 그들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르친다.

짐 존스 목사는 제자들의 죽음을 도운 첫 번째 사제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제의 가장 오래된 비밀 거래이다. 그들은 그대에게 자살을 가르친다. 짐 존스 목사는 미국식으로,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했을 뿐이다. 다른 사제들은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다. 70년, 80년이 걸린다. 그러나 과정은 동일하다. 그들은 모두 그대에게 삶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삶이 잘못되었다면, 죽음이 옳다. 그들은 모두 그대에게 사는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살지 않는 것이 성스러움이다. 그들은 모두 그대에게 수도원으로, 산으로, 삶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그대에게 도피주의를 가르친다.

자살이란 무엇인가? 자살은 궁극적인 도피주의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제가 짐 존스 목사를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고 있다. 기독교인, 무슬림, 힌두교인,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 그들 모두 그를 비난하고 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단지 그들의 가르침의 논리적인 결론일 뿐이다. 그들이 가르쳐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삶은 추하며, 사는 것은 죄라고 가르쳐 왔다. 그러면 죽는 것, 자살하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이다. 그러면 자살은 가장 영적인 행위로 보인다.

자이나교는 심지어 그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며칠 전, 나는 자이나교 승려가 자살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들은 그것을 자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부른다. 그들은 그것을 산타라라고 부른다. 산타라는 단식을 통해 육체를 떠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사람은 여러 날을 단식했다. 산타라는 죽음에 이르는 단식이다. 음식도 물도 없다.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면 죽는 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더 추악한 죽음, 더 고통스러운 죽음, 더 오래 지속되는 비참함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짐 존스 목사는 좋은 일을 했다.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타라를 했다. 즉각적으로 했다. 만약 어떤 일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왜 3개월 동안 그 고통을 늘려야 하는가? 왜 자신을 고문해야 하는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을, 왜 황소 수레를 타고 가야 하는가?

나는 전 세계에 말하고 싶다. 존스가 한 일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그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원이 수 세기에 걸쳐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만이 그를 비난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그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는 미쳤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대들의 모든 사제처럼 – 미치고 신경질적이며, 자학적이고, 병적인 인간이다.

산아이는 옳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삶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지위와 명성에 등을 돌리는 것. 외적인 번영을 경멸하고, 그분에게 봉사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헌신하는 것. 말로 장사하는 자들과 결별하고, 말이 없는 현존 앞에 자리를 잡는 것."』

그는 말한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버리고자 한다면, 명성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지위와 명성을 버려라. 그것은 그대의 사제들과 수도승들에 의해 버려지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린다. 그들은 성인처럼 숭배받기 위해 고행자가 된다. 그들은 명성에 집착한다. 그것은 그들의 에고 여행이다. 그들은 더 많은 존경,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심을 얻기 위해 삶을 버린다.

사나이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말한다. 존경심을 버려라. 그것은 모두 헛소리이다. 사람들이 그대를 존중하든 말든 상관없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뿐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모든 차원에서 살 만큼 용기가 있다면, 신은 그대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그의 앞에 들어설 때, 그대는 온전하게 들어설 것이며, 건강하게 들어설 것이며, 전체적이고, 황홀경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들어설 것이다.

산아이는 말한다. 『... 말로 장사하는 자들과 결별하고..』
사제들, 석학들, 학자들이 있다. 그들의 모든 일은 말을 다루는 것이다. 현실은 추측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

부처가 궁극적인 열반에 들기 전, 그가 육체를 떠나기 전에, 제자 한 명이 그에게 다시 설법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는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49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지금 다시 설법해 달라고 하는가? 내가 전에 설법했다는 말인가?"

그는 49년 동안 설법하고 있었다. 아침, 오후, 저녁, 49년 동안 계속해서 설법했다. 사실 나를 제외하고는 부처만큼 많이 말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무슨 뜻인가, 다시 설법하라고? 내가 삶 속에서 설법해 왔다는 말인가?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나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침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와 소통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모든 말은

그대 안에 더 많은 침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뿐이다. 말은 무관하다. 그 안에 담긴 침묵이 진짜이다. 말은 단지 캡슐일 뿐이다. 캡슐 안에는 침묵, 말 없는 메시지가 있다.

『그 벗에게 가는 길은 그대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대 자신이 그 길이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나서라.』

다른 길은 없다. 그대가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외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길이다. 그대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벗은 멀지 않다.

또 다른 이야기. 어느 날 부처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문수보살이 문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가 말한다. "문수! 문수! 왜 들어오지 않느냐?" 문수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부처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문으로 들어오너라!"

문수보살도 웃으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농담하십니까? 문도 없습니다!" 부처는 문수보살에게 은총을 내리시며 말했다. "문수야, 너는 나를 잘 이해하였다. 길도 없고, 문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 안에 있다.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대는 어떤 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길을 따를 필요도 없다. 그는 이미 도착했다. 그대 자신으로서 도착했다. 구하는 자가 구함이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벗에게 가는 길은 그대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대 자신이 그 길이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나서라.

포도의 즙에서 나오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대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는 포도의 외형에 취해 있을 것인가? 왜 그대는 자신이 취했다고 거짓말하는가?』

코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가장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말이 그대를 취하게 할 수 있는가? 단지 포도의 모양을 봄으로써, 그대는 취할 수 없다. 그대는 그 즙을 맛보아야 한다. 오직 경험, 실존적 경험만이 그대를 해방시킬 수 있다. 말은 새로운 속박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속박, 매우 교양 있고, 장식된 속박이지만, 말은 속박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경전은 단지 감옥일 뿐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경전을 말할 대, 나의 말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 말에 붙잡히지 마라. 말 사이, 행간에 있는 말 없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고 나서 말을 버려라. 껍질을 벗겨 버리고 내용물을 마셔라.

『왜 그대는 자신이 취했다고 거짓말하는가?』
거짓말을 멈추어라! 단지 말, 경전, 지식으로는 누구도 취할 수 없다.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의 존재 깊숙이 들어가 그대 의식의 근원에서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대는 취할 것이며, 영원히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취함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에고에 관한 한 무의식이 되고, 자아에 관한 한 의식이 된다. 그대는 그 취함 속에서 자신을 잊고, 그 취함 속에서 신이 기억된다. 한쪽에는 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억이 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갈 곳이 없다.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그대는 발이 없다.』

의식에는 발이 없다. 그것은 뛰어오를 수 없다.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모든 것이 지금이다! 신은 오직 하나의 시간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여기이다.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다.

'그때'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라. 신은 여여함, 그러함이다. 바로 이 순간, 신은 여기에 있다. 그가 항상 여기에 있으니, 그저 침묵하고 그를 맛보라. 그리고 오직 그를 맛보는 것만이 그대를 해방시킬 수 있다.